

<Melt> 그들이 '녹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무대 위에 모든 것을 멈춰버린 두 명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독특한 포스트 모던적 감성으로, 작품에 신체적 움직임과 함께 개념과 철학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안무가로 평가 받고 있는 루시 게랭. 그녀의 작품은 온도가 1도, 1도 올라감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와 감정의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더욱 천밀하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듀엣 <Melt>는 시종일관 정교한 긴장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두 무용수들의 몸 위로 겹쳐지는 미카엘라 프렌치의 모션 그래픽은 그들의 손등 위에 눈송이를 올려놓고, 그들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며, 그들의 표정을 확장한다. 프랑수아 테타의 음악은 예민하고 차가운 얼음을 깨뜨리며 더욱 뜨겁고 풍부한 느낌으로 상승한다. 이들의 작업은 자연스럽게 몸과 철학을 껴맨 게랭의 안무처럼 무대와 신체가 완벽하게 서로에게 녹아 들도록 하며, 신체의 내부와 외부를 꿰뚫는 감각은 영상과 음악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관객들의 눈 앞으로 다가온다.

< 지상의 모든 금을 위하여 > 검은 양복을 입고 불편한 듯 무대 위를 걸어 다니는 올리비에 뒤부아는 어쩔 수 없는 게으름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보이지 않는 굴레가 그의 움직임을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계산하는 그의 동작은 긴장되고 불편해 보인다. 그러나 불필요한 긴장과 자의식을 벗어 던지는 순간, 그는 땀과 숨의 에너지를 되찾는다. 족쇄를 벗어 던진 그는 도발적인 동작과 발칙한 유머로 무대를 누비며 관객들을 유혹하고, 평범하게만 보였던 그의 첫인상은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표정과 몸짓에 무너진다. 그의 언어는 파격적이지만 저속하지 않으며, 형식주의와 물질주의, 무대 위의 예술가가 관객과 맺는 관계에 대한 편견을 유쾌하고 재치 있게 비꼰다. 전통적인 춤의 코드는 식상하고, 지나친 파격은 고통스럽다. 누가 무거움만이 진지하다 했는가? 3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거만한 듯 여유로운 뒤부아의 진지하고 강렬한 메시지는 오로지 몸의 언어를 통해서만 이토록 짜릿한 충격으로 전해진다.

The Language of the Body beyond the constraints of Formalism, a Refreshing Revolt!

Olivier Dubois who made a strong impression in Jan Fabre's <The History of Tears > visits SPAF 2007 with his solo work, presented at the Avignon Festival in 2006. In a black suit, he paces here and there on stage appearing fidgety. His highly strained and forced movements are tense and uncomfortable. Soon, however, his self-consciousness is thrown aside and he draws the audience in with his outrageous movements and provocative sense of humor. Who said that possessing the lightness of a feather is the prerequisite of a dancer? The fullness of Dubois's physical presence is a refreshing revolt against the traditional and formal language of the body and gravity. Dubois' language is both deconstructive and enlightening as he parodies both formalism and materialism with extreme sensitivity.

How Hot are Your Emotions?

Lucy Guerin is known as a choreographer who harmonizes bodily movements with concepts and philosophy in a work, taking full advantage of her post-modern sensibility. Her work portrays changes in the body and emotions as the temperature rises by one degree. Melt expresses the paradoxical relation between the body and emotions. What may be surprising is that the physical space each dancer occupies is less than 2 meters o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sides. That may account for the closeness and vibrancy of movements of the dancers, commensurate to the rising temperature, to present exquisite and refined beauty. Motion graphic by Michaela French over the bodies of the two dancers as well as music by Francois Tetaz allow the stage and the bodies to merge completely. The sensibility, piercing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ody, is appreciated by the audience with more clarity through images and music.